

일부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의 융합적 관계

장선주, 박영남*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literacy in Some Foreign Women

Sun-Ju Jang, Young-Nam Park*
Professor, Division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측정하여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6월~2018년 9월 까지 경북 일부 지역의 외국인 여성 248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은 나이,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에서,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은 결혼유무,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 융합, 외국인여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oral health literacy of foreign women and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literac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urveyed by 248 foreign women in some areas of Gyeongbuk from June 2018 to September 2018.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verbal oral health litera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ge, education level, and Korean residence period, and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in marriage, education level, and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oral health literacy of foreign women, an effective oral health program has been developed to change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Key Words :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Literacy, Convergence, Foreign Women

1.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 하여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국적과 체류형태를 가진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현황을 살

펴보면 2007년 722,686명, 2010년 1,139,283명, 2012년 1,409,577명, 2016년 1,764,66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2007년 1.5%에서 2016년 3.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별 비율은 외국인 근로자 30.7%, 외국인 동포 13.4%, 결혼이민자 9.0%, 유학생 5.4%, 기타 21.6%이며, 국적별은 외국주민은 아시아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port of academic research at Gimcheon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Young-Nam Park(ivy9797@empas.com)

Received December 26, 2018

Revised March 5, 2019

Accepted April 2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91.1%, 북미 46%, 유럽 2.5%, 아프리카 1.0%, 오세아니아 0.4, 중남미 0.2% 순으로 나타났다[1].

국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실환자 비중은 2013년 0.45%, 2014 0.56%, 2015년 0.63%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에서 치과병원의 실환자는 2011년 2,219명, 2013년 3,513명, 2015년 5,16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치과의원의 실환자 수도 2011년 1,299명, 2013년 2,543명, 2015년 3,155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현황을 보면 치과병원 등록비율은 2013년 40.3%에서 2015년 37.1%로 줄어들었고, 치과의원도 2013년 2.7%에서 2015년 2.5%로 줄어들었으며, 치과병·의원 이용 외국인 실환자수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는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인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외국인 치과 이용 비율은 매우 저조하였다[2]. 이는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치과이용 경험률이 낮고,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치과 의료용 시 또다른 문제점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전문 의료 용어가 모국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3], 처방약 복용이나 약국 이용 시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4].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은 치과 의료 이용 경험에 영향을 주며[5],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구강건강문해력도 낮게 나타났다[6], 구강건강문해력이 낮을수록 구강보건행태도 낮게 나타났다[7].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건강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구강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정도이며, 공식적인 측정기구는 REALD-30(2007), REALD-99(2007),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Dentistry(2007), Oral Health Literacy Instrument(2009) 등[8]이 있으며, 구강건강의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낮으면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교육자료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측정하여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2018년 9월 까지 경북 일부 지역의 외국인 여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으며, 선정된 다문화여성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자는 제외 하였다.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사전 섭외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여성은 제외하였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0.5, 유의수준 $\alpha=0.0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200장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설문지 회수를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결측치가 있는 2장을 제외한 248장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U-201709-HRa-07-03)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방법은 구강보건지식 10문항, 구강보건행태 8문항,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30문항,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부여하여 정답의 합을 총 점수 평가하였고, 구강보건행태는 문항마다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정기적인 치과진료, 스켈링 유무, 양치질습관, 치과방문시기, 구강위생용품사용유무, 식이조절, 간식섭취횟수, 구강건강의 지식획득경로로 구성하였다.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은 Wong 외[9]의 선행논문을 참고하였으며, 30문항 중 치과의사 1인, 치위생학과 교수 2인 자문을 받고 한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 7문항을 제외한 임상 치과에서 많이 사용 중인 단어를 선택하여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구취, 충치, 유치, 영구치 문항을 추가하였다. 기능적 문해력은 남궁 외[4]의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독해 영역에서 치아홈메우기 1문항, 자료제시영역에서는 치약 사용법 1문항, 구강위생용품 1문항, 치과재료 1문항

으로 하였으며, 수리영역에서는 발치 후 주의사항(1문항)으로 하였다.

2.4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자는 설문조사 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 2인과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 2인이 학생 3인을 사전교육훈련 하였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 5인은 1:1에서 1:3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도록 한 뒤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 방법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낸 후 설문조사를 허락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다문화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2.5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문해력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구강건강문해력은 상관분석(Pears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에서 25세 미만이 22.2%, 26~30세 35.1%, 31세 이상이 42.7%로 나타났고, 국적은 베트남 42.3%, 중국 16.5%, 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5	55(22.2)
	26-30	87(35.1)
	31 ≥	106(42.7)
Nationality	China	41(16.5)
	Philippine	28(11.3)
	Thailand	9(3.6)
	Vietnam	105(42.3)
	Cambodia	25(10.1)
Marital status	Other	40(16.1)
	Married	175(70.6)
	Single	73(29.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1(8.5)
	Middle school	55(22.2)
	High school	99(39.8)
	≥College	49(19.8)
	Other	24(9.7)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109(44.0)
	4-6	44(17.7)
	7-9	39(15.7)
	10 ≥	56(22.6)
Total		248(100.0)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M±SD	p	M±SD	p
Age	≥25	3.27±1.84	0.06	5.94±2.00	0.171
	26-30	3.95±2.19		6.35±1.58	
	31 ≥	4.02±2.00		6.52±1.99	
Nationality	China	3.65±1.82	0.87	6.21±2.13	0.906
	Philippine	3.60±2.07		6.14±2.04	
	Thailand	3.88±2.26		6.55±1.58	
	Vietnam	4.01±2.15		6.46±1.84	
	Cambodia	3.60±2.17		6.08±1.44	
	Other	3.82±1.93		6.37±1.87	
Marital status	Married	4.04±2.03	0.01*	6.49±1.87	0.04
	Single	3.32±2.01		5.97±1.8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57±1.20	0.03*	6.23±1.72	0.25
	Middle school	4.12±2.34		6.56±2.02	
	High school	3.82±2.00		6.48±1.76	
	≥College	4.18±1.96		6.18±2.00	
	Other	2.70±2.01		5.62±1.68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3.24±1.88	0.00***	6.11±1.84	0.17
	4-6	4.38±2.13		6.15±2.10	
	7-9	4.35±2.08		6.61±1.59	
	10 ≥	4.17±2.03		6.71±1.85	

리핀 11.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에서는 기혼이 70.6%로 미혼 29.4%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 39.8%, 중졸 22.2%, 대졸 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인 44.0%, 4-6년 17.7%, 7-9년 15.7%, 10년 이상 22.6%로 나타났다.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및 구강보건지식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결혼유무 기혼이 4.04, 미혼이 3.32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대졸에서 4.18 중졸에서 4.12, 고졸에서 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거주기간에서는 4-6년 거주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유무,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0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결혼유무에서 기혼 6.49, 미혼 5.97로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문해력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은 국적, 결혼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이에서 25세 미만에서 9.63, 26~30세가 13.20, 31세 이상이 10.25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대졸에서 1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거주기간은 3년 미만인 11.88, 4-6년인 6.88, 7-9년은 10.00, 10년 이상은 1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은 나이, 국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이 1.64, 미혼이 2.01로 미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에는 대졸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1.5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외국인 여성의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을 살펴보면 30개의 치과용어 중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한 상위 10%는 충치 69.4, 흡연 68.1, 감염 62.1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10%는 법랑질 13.3, 실런트 12.9, 봉와직염 6.0로 나타났다.

3.5 외국인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의 상관관계

외국인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도 높게 나타났다.

Table 3.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M±SD	p	M±SD	p
Age	≥25	9.63±7.04	0.00	1.52±1.18	0.12
	26-30	13.20±7.17		1.97±1.31	
	31≥	10.25±7.57		1.68±1.43	
Nationality	China	10.14±7.84	.054	1.21±1.33	0.05
	Philippine	10.67±6.19		2.03±1.45	
	Thailand	12.44±9.31		1.77±1.56	
	Vietnam	12.06±7.70		1.89±1.19	
	Cambodia	9.44±6.69		1.44±1.35	
	Other	10.90±7.23		1.92±1.49	
Marital status	Married	11.10±7.77	0.88	1.64±1.35	0.04
	Single	11.26±6.65		2.01±1.2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9.57±6.93	0.01	1.28±1.52	0.00
	Middle school	8.52±6.66		1.43±1.31	
	High school	12.45±7.57		1.95±1.30	
	≥College	12.63±7.21		2.18±1.40	
	Other	10.16±8.07		1.16±0.7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s)	≥3	11.88±6.60	0.00	1.17±0.11	0.00
	4-6	6.88±7.17		1.24±0.18	
	7-9	10.00±7.61		1.35±0.21	
	10≥	13.87±8.16		1.57±0.21	

Table 4. Verbal oral health literacy items

Categories	N	%
Smoking	169	68.1
Infect	154	62.1
Abscess	48	19.4
Cyst	39	15.7
Cellulitis	15	6.0
Fracture	113	45.6
Genetics	134	54.0
Sedation	72	29.0
Diagnosis	138	55.6
Erupt	48	19.4
Bite	73	29.4
Orthodontics	132	53.2
Fluoride	86	34.7
Bruxism	116	46.8
Dentition	65	26.2
Enamel	33	13.3
Canine	127	51.2
Molar	139	56.0
Plaque	56	22.6
Stomatitis	82	33.1
Implant	144	58.1
Crown	63	25.4
Slant	32	12.9
Interdental brush	107	43.1
Deciduous tooth	100	40.3
Permanent teeth	101	40.7
Resin	52	21.0
Amalgam	37	14.9
Halitosis	119	48.0
Cavity	172	69.4

4. 논의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완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구강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건강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강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방진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강

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10,11]. 특히 외국인 의료급여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구강병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전문 의료 용어의 사용으로 치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측정하여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관성 파악하여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기혼 4.04, 미혼 3.32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대졸 4.18 중졸 4.12, 고졸 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에서는 4~6년 거주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유무,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결혼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건강행태와 지식이 사회적 요인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12], 신[13]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지식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체류기간, 국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체류기간은 1~3년이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궁 등[6]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문해력이 학력수준은 대졸이상,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직업이 있을 경우 구강건강문해력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은 나이에서 25세 미만 9.63, 26~30세 13.20, 31세 이상이 10.25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대졸에서 1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거주기간은 3년 미만 11.88, 4-6년 6.88, 7-9년 10.00, 10년 이상은 1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에서도 결혼 유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in foreign women

Independence variable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Verbal oral health literacy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1			
Oral health behavior	.254**	1		
Verbal oral health literacy	.094	0.93	1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260**	.173**	.407**	1

무에서는 기혼 1.64, 미혼 2.01로 미혼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에는 대졸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1.5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건강문해력은 구강건강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구강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므로 교육수준과 한국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여성의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을 살펴보면 30개의 치과용어 중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한 상위 10%는 총치 69.4, 흡연 68.1, 감염 62.1%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10%는 법랑질 13.3%, 실란트 12.9, 봉와직염 6.0%로 나타나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관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4-16]. 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의 이해수준은 높으나, 치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외국인 여성의 치과병(의)원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수준에 맞는 단어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여성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도 높게 나타났다. Gironoda 등[17]의 연구와 Vann 등[18]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건강관련 행위가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장의 연구[19]에서도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문해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은 치과에서 사용 중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은 치과 정보나 치과 주의사항 등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외국인의 여성의 구강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구강보건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하며, 치과에서 사용 중인 전문용어 및 단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표기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과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와 구강건강문해력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여성의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었고, 결과로는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언어적 구강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구강건강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2018 Statistical Yearbook. <http://www.mois.go.kr>
- [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6). 2016 health industry statistics <http://www.khidi.or.kr>.
- [3] B. S. Lee, I. K. Oh & E. M. Lee. (2011).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of Korean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26-237.
- [4] S. J. Kim. (2015). The Conception and Factors that Affect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Studies of Multicultural Contents*, 18, 255-297.
- [5] I. S. Nam, K. S. Lee & E. J. Jang. (2015) Related Factors to Dental Care Utilization and Oral Health Status in Im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5(1), 19-29.
- [6] E. J. Namkoong, E. Y. Park, S. H. Jung & D. S. Ma (2016). Oral Health Literacy of Mothers Belong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in Gangneung City: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 Academy oral health*, 40(2), 71-78.
- [7] H. J. Ju, H. S. Lee & H. W. Oh (2015). Relationship of Oral Health Literacy with Oral Health Behaviors among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9(3), 187-195.
- [8] J. H. Schiavo. (2011). Oral Health Literacy in the Dental Office: The Unrecognized Patient Risk Factor.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85(4), pp. 248-255.
- [9] H. M. Wong, S. M. Bridges, C. K. Y. Yin, C. P. J. McGrath, T. K. Au & D. S. Parthasarathy.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ong Kong 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Dentistry.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3, 1-0.
- [10] S. Y. Yon & E. S. Lee.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ooth Brushing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71-78.

[11] S. Y. Yon & I. S. Nam. (2015).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Behavior of Foreign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3), 451-459.

[12] H. J. Ju, H. S. Lee & H. W. Oh. (2015). Relationship of oral health literacy with oral health behaviors among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9(3), 187-195.

[13] S. H. Shin. (2011). The Oral Health Behaviors and Knowledges of some Foreig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5(4), 474-485.

[14] H. J. Ju, H. W. Oh & J. Y. Kim (2012). A cross-sectional Study on Oral Health Literac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Adults: I. Verbal Oral Health Liter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6(2), 87-95.

[15] S. I. Kim, H. K. Par, J. N. Song, S. Y. Ko & H. J. Kim.(2017). A Study on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Behavior among Adul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8(3), 69-82.

[16] H. K. Kim, J. H. Jeong & H. J. Noh. (2016). Oral health literacy among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6), 879-891.

[17] M. Gironda, C. Der-Martirosian, J. Holtzman & K. Atchison. (2013). A brief 20-item dental/medical health literacy screen (REALMD-20). *Journal of the Public Health Dentistry* 73, 50-55.

[18] W. F. Vann, J. Y. Lee, D. Baker & K. Divaris. (2010). Oral health literacy among female caregivers: impact on oral health outcome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Dental Research*, 89, 1395-1400.

[19]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69-75.

박 영 남(Yong-Nam Park)

[정회원]



- 2008년 8월 : 전남대학교 치의학과(치의학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진료지원융합, 보건행정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

· E-Mail : ivy9797@empas.com

장 선 주(Sun-Ju Jang)

[정회원]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구강보건학박사)
- 2016년 8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의전담
- 관심분야 : 진료지원융합, 치의학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

· E-Mail : sunju313@hanmail.net